



이주홍 박사 콜로키움:

러시아어 미래시제와 동사의 상, 양상의 상호관계

서울대학교 러시아 연구소·러시아센터는 지난 6월 22일, 러시아연구소 자료실에서 이주홍 박사(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어학박사)를 모시고 “러시아어 미래시제와 동사의 상, 양상의 상호관계(Категория будущего времени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видом и модальностью)”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주홍 박사는 먼저 ‘양상’ 개념을 소개한 뒤, 러시아어의 미래시제를 직설법 시제범주 안에서 나타나는 양상적 표현이라고 간주하고 러시아어 미래시제 형태를 통해 문맥에서 함축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의미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들이 약화되는 조건들을 제시했다. 또한 이주홍 박사는 러시아어 코퍼스를 통해서 조사한, 시제와 동사의 상의 형태에 따른 구체적인 동사들의 사용 빈도수를 통해 완료상과 불완료상의 실제 사용 빈도수는 문장에서의 형태, 시제와의 연관성 그리고 어휘적 의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며, 특히 미래시제에서 불완료상 동사와 완료상 동사의 빈도수 차이가 과거시제에 비해 현저하게 두드러진다는 것에 주목했다. 발표자는 이를 통해 러시아어 미래시제는 동사의 상, 양상 그리고 어휘적 의미 모두가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연합체이기에 앞으로 보다 심도깊은 연구를 할만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